



2024년도 침례식



2024년 7월 15일(월·축)에 순복음동경교회 아끼가와 기도원에서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2024년에 침례를 받은 35명의 성도들은 침례식을 위해 세 번의 침례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복음동경교회에서는 7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침례식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리며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목차

- P2: 2024년도 침례식
- P3: 일본선교① 중부지방·동북 I (고신에츠)·보소지방·하치조지마
- P4: 일본선교② 관동지방 (하치오지·카사이지성전)
- P5: 일본선교③ 삿포로신학교 입학식 & 홋카이도 선교
- P6: 세계선교 - 말레이시아 선교 & 아시아리더스서밋 (인도)
- P7: 다이아몬드워크 특별성회 (구치윤 목사)
- P8: 담임목사 컬럼 “숨겨진 생명력”
- P8: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제73차 정기총회

가족신문은 Web페이지와 LIN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eb
페이지



공식
LINE



알림



삿포로신학교 제4기생 모집 중
관심있는 분은 교구장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sapporobible.college>)



선교여행을 함께 할 성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집 중인 일본 선교여행이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선교
일정확인
여기➔



2024년도 침례식 @아끼가와 기도원 2024.7.15 (월·축)

침례식 예배 : 침례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20-



침례식을 거행하기 앞서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는 “침례”(마태복음 28:18-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였으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광경입니다. 침례는 형식적으로 세리머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옛 사람을 벗고 새롭게 태어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물에 들어가 나올 때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자아가 완전히 죽고 이웃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침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 모인 많은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의 기대 속에서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침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걸으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본선교① 중부지방 · 동북 I (고신에츠) · 보소지방 · 하치조지마



동북 I (고신에츠)
6/23-26



중부지방 선교 4/22-24



보소지방 선교 7/1-3



하치조지마 선교 6/27



일본선교② 관동지방 (하치오지 · 카사이 · 지성전)

4/14
긴시초 지성전
강세영 목사



4/21
순복음하치오지교회
황우태 목사



5/12
가와사키 지성전
고복덕 목사



6/9
닛포리 지성전
사사키 에이코 전도사



6/16
후지사와 지성전
배종숙 전도사



6/30
순복음카사이교회
오민우 목사



7/14
다치가와 지성전
한태순 전도사



일본선교③ 삿포로신학교 입학식 & 홋카이도 선교

삿포로신학교 제3기생 입학식 예배

2024. 4. 2 (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후략)

— 요한복음 14:1-3 —

4월 2일 19시 30분, 순복음동경교회 선교단은 삿포로성전을 방문해 삿포로성전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삿포로신학교 제3기생 입학식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를 맡은 삿포로신학교 이사장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알렸습니다. 또 그와 함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안과 슬픔, 염려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안과 슬픔, 염려를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믿어 담대히 나가십시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의 훈련은 하루하루 괴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키워 나가는 신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삿포로신학교 제3기생을 격려했습니다.



설교 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사진 왼쪽부터 김애리, 김유영, 니시즈 사라, 하마다 유리, 타무라 유마, 5명의 입학생의 입학허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박희경 홋카이도선교회장의 인사말, 오사카 타로우 교수(야마테초교회 담임목사)의 축사가 있는 후 시가끼 담임목사의 축도로 입학식예배를 마쳤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결정한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 복음화를 이끄는 참된 주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삿포로성전 축복성회

2024. 4. 3 (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중략)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잡기게 되었더라

— 누가복음 5:4-7 —



4월 3일 11시, 삿포로성전 축복성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강사를 맡은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며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초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폭풍과 풍랑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배가 침몰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배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해지는 배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설교 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예배에 참가한 삿포로성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기도로 축복하였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이아몬드워크 특별성회 2024.5.1(수)-3(금)

5월 1일(수)~3일(금), 대만 신생명교회(New Life Church)의 담임목사 구치윤 목사와 타이페이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 장한업 목사를 초청해 특별성회를 열었습니다.

성회 첫 날 : 영혼을 다스리는 생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후략)
— 시편 1:1-6 —

5월 1일(수) 19시 30분부터 시작된 성회에서 구치윤 목사는 ‘영혼을 다스리는 생활’(시편 1:1-6)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은 자르고 정리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잘 분별하여 방심하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며 영적인 삶을 추구하여 영적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라며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성회 둘째 날 : 의의 길을 걷는 것 (천로역정)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후략)
— 시편 23:1-6 —

5월 2일(목) 19시 30분부터 시작된 성회에서 구치윤 목사는 ‘의의 길을 걷는 것’(시편 23:1-6)이란 제목으로 의의 길의 원칙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할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크리스천의 인생에도 역경이 옵니다. 하지만 역경을 통해 겸손과 긍휼함을 배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라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해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리고 훈련하여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성회 마지막 날 : 교회 설립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후략)
— 시편 122:1-9 —



5월 3일(금) 11시, 구치윤 목사는 ‘교회 설립’(시편 122:1-9)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배우고 있는 영적훈련의 목표지점은 ‘교회설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요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 그 곳에서 영적교회를 설립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각각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다른 형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데 열정적이어야 하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이어져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까지 부흥의 수확을 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라며 뜨겁게 전했습니다.

신생명교회에서 20명이상이 방문하였는데 순복음동경교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생명교회와 순복음동경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복음화의 선두주자가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2024.5.29(수)-31(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파이어 콘퍼런스(Fire Conference)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도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잡기게 되었더라
— 누가복음 5:4-7 —



5월 29-31일, 순복음동경교회 선교팀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여 “파이어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주강사로 초청받은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파이어 콘퍼런스(Fire Conference)”는 타이페이 신티엔싱타오교회 담임목사인 장마오송 목사가 주최하는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성령집회입니다.

대만에서 시작된 이 성회는 현재 홍콩, 뉴질랜드, 호주 등 9개국의 중화권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성회는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성회임에도 불구하고 약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은혜가 넘치는 성회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파이어 콘퍼런스’의 주강사로 초청받은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누가복음 5:4-7 절의 말씀을 통해 “실망 속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배에 초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열쇠입니다”라고 강력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전도가 금지된 말레이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전하며 성도들을 격려했고 더욱 큰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시아 리더스 서밋 @인도

2024.6.4(화)-5(수)

6월 4-5일,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하ALS)이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LS는 ‘아시아 선교는 아시아인이 이루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3년에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아시아 각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만든 단체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ALS는 사티쉬 쿠마르(Satish Kumar) 목사가 담임을 역임하고 있는 갈보리템플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해 참가한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렸고, 세미나에서 근황보고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템플교회의 19주년 기념 축하성회가 대성전에서 개최되어 ALS의 창립자인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4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열린 성회에는 세계에서 모인 영적 지도자들과 인도 전역의 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이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갈보리템플교회의 부흥,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는 현재 기독교인의 인구비율이 2.3%이지만 인도가 세계 최대인구의 나라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인구의 기독교인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편,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의 우상이 모인 땅이기도 하기에 인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의 땅에서 갈보리템플교회는 2005년 교인 25명에서 시작해 지금은 30만명 규모의 인도 최대교회로 성장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빠르게 성령운동이 일어나길 바라며 부흥의 불이 타오를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 컬럼 “ 숨겨진 생명력 ”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 마가복음 4:30-32 -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단순히 작은 것의 귀 중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가진 생명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장성이 핵심입니다. 0.5밀리, 0.5그램의 작은 씨가 1.5미터에서 3미터까지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이 비유를 통하여 복음의 생명력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순종하여 얻은 것이 예수님 외에 뭐가 있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제자들의 불평은 잘못된 것이며 큰 착각이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복음 그 자체이며 인생의 꿈, 희망,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되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마28:18)분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28:19-20)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전부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생명과 힘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불투명하더라도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비전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간질병을 못 고치고 “주여, 어찌하여 우리들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에 바탕을 둔 비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봤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데 그 가능성 안에서 내다보이는 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겨자씨가 성장하듯이 자기자신의 성장이 이웃의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어나는 것은 이웃의 행복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했을 때 많은 새들이 둥지를 얻을 수 있듯 여러분의 나무에 많은 이웃이 와서 안식을 얻는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웃에게 베풀기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과 비전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정기총회 2024.5.20(월)



축사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1958년 미국 선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조용기 목사님이 초대 총회장으로 취임하신 것, 19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 8800만명의 성도가 소속되어 있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초대 총재로 역임하신 것,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계최대교회로 성장한 것, 모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결과입니다.

동일하게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제2대 당회장 담임목사가 된 것, 2018년에 분단되었던 교단이 통합된 것, 모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섭리이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결과입니다.

모두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떠올리며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본 교단의 화합과 단결은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있어 힘이 되며 격려가 됩니다. 교단이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5월 20일 오후 2시, 순복음제주도중앙교회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제73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되는 총회’(고전 12:13)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 개회예배에 초청받은 순복음일본총회장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는 해외대표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오직 성령으로’(에베소서4: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5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